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은퇴자 및 장기근속 대상자 발표

은퇴자는 만70세, 장기근속자는 10, 15, 20, 25, 30년 근속 해당
장로, 권사에 20년 이상 봉사자는 원로 추대

교회는 한 직임을 맡아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을 매년 포상하여 오고 있는데 올해도 이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장기 근속자 선정은 직분을 받고 동일 직분에서 근속한 사람으로, 직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직분에서 장기근속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가 9년 근속한 후 서리집사 임명을 받는 경우 교회학교 근속연수는 해당이 안되고 서리집사 근속연수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근속일수는 취임 및 임명일로부터 포상 시행일까지로 하며 군복무 경우 제대와 동시 봉사직에 복귀하였을 때는 근속하되 군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금년말로 70세가 되는 직분자들은 은퇴를 하게 된다. 특히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로 은퇴하는 사람 중, 동일 직분에 20년 이상 봉사한 사람을 원로로 추대하게 된다.

금년에 은퇴하는 사람 중에 최순복 전도사, 이태규 장로, 신군자 권사는 근속 20년이 넘어 원로로 추대될 예정이다.

각 직분별 은퇴자 및 근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단에 이상이 있거나 누락된 사람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원로장로 236 이태규
- 원로여전도사 2547 최순복
- 원로권사 17 신군자
- 은퇴장로 4230 강현 1288 김영개
- 은퇴여전도사 81-1034 정복인

- 은퇴안수집사 525 서동석
- 은퇴권사
 - 575 공향조 87-87 김갑순 372 김귀녀
 - 2301 김근실 999 김복희 1830 김영옥
 - 982 김영희 613 김정례 79-469 김정은
 - 689 서영자 2597 송희연 4446 신갑범
 - 907 양정옥 84-152 윤정덕 588 이란숙
 - 954 이명자 82-220 이옥분 938 이정자
 - 85-672 조향숙 357 지숙원 203 최영호
 - 5352 현숙희 84-198 황순정
- 권사 근속자
 - 20년(1977. 1) 982 김영희 901 전순자
 - 15년(1982. 1)
 - 372 김귀녀 1019 김옥선 1780 김용순
 - 1178 김정덕 2642 김정화 1020 김후전
 - 1609 남궁규원 1312 라봉도 105 민은혜
 - 870 서양순 904 송명희 2174 안옥실
 - 159 이상덕 942 이춘일 430 장영옥
 - 25 정송화 10 조동숙 1715 필기복
 - 1941 한순원
 - 10년(1987. 1)
 - 81-846 권영애 1063 김금순 4177 김길득
 - 79-36 김선희 118 김연균 712 김용섭
 - 1576 김춘자 242 김춘희 3366 나종의
 - 84-755 나종순 1692 남은주 909 문옥순
 - 3638 박명희 79-167 박민례 82-223 박운석
 - 1073 사임선 736 서옥재 427 양숙자
 - 4630 우순성 643 유금열 4-152 윤정덕
 - 596 이병숙 238 이순희 4886 이윤영
 - 3826 이인숙 2842 전부덕 1270 정순자

- 1969 정주한 2191 조경옥 2871 조미경
- 461 조복덕
- 서리집사 근속자
 - 30년(1967. 1) 1026 홍정혜
 - 20년(1977. 1)
 - 50-1 김성덕 3293 박병은 1471 이진국
 - 15년(1982. 1) 남자
 - 909 김은수 1903 김인규 4128 노기철
 - 79-251 마숙전 1958 변영배 1980 석영식
 - 4110 송수일 1806 윤주현 2729 이구상
 - 2396 이상철 79-255 이종성 250-2 이효상
 - 643 임용광 3326 임점택 4694 임창수
 - 870 정재복 1419 한종택
 - 여자
 - 2795 김정자 1207 김경희 79-260 김경희
 - 2316 김덕실 4437 김성열 688 김영란
 - 1768 김영복 1371 김은희 3710 라종예
 - 3875 박옥림 5098 안금자 2282 안정자
 - 3000 유효순 3326 이인향 1471 이증영
 - 3195 이천애 1588 정영배 4190 정옥남
 - 79-467 정은숙 3157 최명초 2436 홍경선
 - 10년(1987. 1) 남자
 - 80-750 공석생 81-999 김광수 83-1348 김낙홍
 - 84-765 김봉중 84-230 김성호 83-419 김연근
 - 1906 김원봉 84-1241 김정호 81-67 김종은
 - 3338 김중천 84-461 김태전 81-389 김홍기
 - 84-807 동창환 4119 민명옥 2380 박길홍
 - 82-704 박노봉 83-376 백운홍 84-54 빈영환
 - 85-112 안성식 84-233 양승길 82-755 이봉주
 - 3567 이상태 4634 이승구 81-542 이영희
 - 3745 이종갑 81-421 이종원 81-759 이태균

- 80-663 이흥기 80-634 임순배 82-333 임춘식
- 82-794 장경수 84-138 장태석 471 정상수
- 1892 정영현 80-91 정운환 3685 정위식
- 여자
 - 82-791 강성자 82-524 강영미 3025공정자
 - 4295 김복자 84-1325 김숙자 84-547 김순은
 - 82-544 김순임 84-909 김신희 83-121 김연태
 - 82-825 김영순 81-655 김영자 82-290 김예순
 - 5346 김윤희 1961 김인한 81-777 김정순
 - 81-504 김정화 79-550 김차금 84-620 김학희
 - 82-621 마봉희 84-619 문봉례 83-173 문영남
 - 2360 박신자 84-1024 박영자 2895 백현제
 - 908 석귀수 81-295 선순례 81-145 성명선
 - 80-416 손복희 83-605 신숙재 1773 양은숙
 - 82-48 여정자 84-614 오순자 1636 오윤숙
 - 4826 윤명자 83-620 윤병순 84-461 윤병연
 - 80-10 윤홍자 80-402 이강자 84-77 이경자
 - 84-988 이계옥 84-462 이규숙 80-108 이길자
 - 84-621 이남숙 80-76 이상옥 81-337 이선록
 - 82-176 이순이 2041 이승순 84-345 이연순
 - 4230 이연화 4974 이옥숙 84-233 이옥자
 - 82-323 이정분 80-739 이정숙 81-385 이종희
 - 2019 이해영 86-87 이효순 80-663 이훈숙
 - 5192 장순자 72-294 전경금 4110 전복실
 - 1212 전순희 80-167 전영희 85-794 전춘옥
 - 81-85 정경옥 84-623 조순림 80-174 조혜경
 - 80-772 채홍연 50-2 최금숙 2396 최금실
 - 82-241 최수경 85-25 함순려 82-7 함윤자
- 직원 근속자
 - 10년(1987. 1) 80-166 김형철
- 여전도사 근속자
 - 25년(1972. 1) 2547 최순복
 - 20년(1977. 1) 3645 정연희
 - 15년(1982. 1) 81-1034 정복인
 - 10년(1987. 1) 86-795 최명자



▲ 지난 주일 초등1-6부가 벌인 새친구 초청잔치가 각 부서의 특색에 맞게 성황을 이룬 가운데 진행됐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각 가정에서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어렵지 않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초등4부의 새 친구 초청전도잔치의 모습이다.

1997년도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 교육

1차 11월 6일(수), 2차 11월 10일(주일)
불참자는 임명에서 제외

교회는 1997년도 신입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자를 위한 교육 및 면접을 11월 6일(수)과 11월 10일(주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서리집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교육 및 면접에 참가해야 서리집사 및 권찰에 임명될 수 있다. 각자 개인적으로 통보받은 후보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면접에는 1차, 2차 중 한번만 참석하면 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2차
날짜	11월 6일(수)	11월 10일(주일)
시간	교육 오후 12시 40분-2시 30분 면접 오후 2시 40분	교육 오후 3시 20분-4시 50분 면접 오후 6시 20분
장소	교육 교육관 307호, 314호 면접 교육관 3, 4층(303-408호)	교육 교육관 307호, 314호 면접 교육관 3, 4층(303-408호)
대상	여집사 및 권찰 후보 중심	남집사 후보 중심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악한 자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2)

(시편 35:1-28)

2. 다윗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35:1, 11-16)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 무고한 자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일은 꿈도 안 꾸었는데 거짓을 꾸며 왕 앞에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된 인간들이 사울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무 장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아무 장소에서 비밀히 나쁜 의논을 합니다" 하면서 사울 왕을 충동시킵니다.

악한 권세자에게 아부를 해서 의인을 죽이려고 무고한 자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2)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식은 부모님에게 거역하지 않는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자는 예수님만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조금만 잘못되는 것 같으면 자기 죄로 잘못되면서도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꿈에라도 억울함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남의 잘못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은 욕심을 채우는데 양심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는 욕이 되든지 말든지, 교회가 부흥하든지 말든지 자기의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욕심 때문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 장군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악한 무리들이 병들었을 때에 좋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배움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힘과 돈과 시간과 실력을 다 바쳐서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들을 전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피움을 당해서 도망을 다니는 이때에 그들이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니 배은망덕한 무리들입니다.

세상에는 원수가 많습니다. 아벨의 원수는 뱀 사람이 아닌 형 가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원수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남보다 앞서면 존경을 받지만 아울러 시기를 받

기 쉬운 것이 세상이고 남보다 떨어지면 동정과 아울러 천대와 착취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서도 억울함을 당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 무고히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요 충신인 다윗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원수가 된 사람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서로 의논을 하고 암호를 잡니다. 또 원수들은 입만 벌리면 다윗을 비방하고 무섭게 저주합니다.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저들은 분명히 보았다고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밤낮 소원은 빠른 시일 내에 다윗을 죽이고 사울 왕에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이토록 억울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안보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간섭을 안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제는 못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못들으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억울하고 위태로운 나를 멸망 당하기 전에 건져 주세요. 온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이제는 행하시므로 나타내 주세요. 가만히 모르는 척 버려두지 마시고 떨치고 일어나옵소서. 하나님께서 '안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벌벌 떨고 나는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공정하게 변명해 주시고 나를 송사하는 무리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나를 판단만 해 주시면 원수들이 나를 죽이고 기뻐할 마음을 가졌다가도 '아이고 안되겠다' 깨닫고 회개할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힘' 하고 일어나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 회개하는 자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안될 때에는 하나님이 처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망하는 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들의 멸망을 먼저 빌지 아니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다윗 장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화친을 청할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찬하만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굳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선한 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원수가 억울하게 괴롭혀도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3. 다윗의 찬양이 어떠합니까 (35:17-18)

다윗은 원수들이 옛날부터 원수였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배움을 입고 금식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들의 병이 나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명을 내놓고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까닭없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직접 원수 갚을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억울한데 칼을 뽑아 죽이면 되겠지만 직접 원수 갚을 마음은 없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말로 갚고 행실로 원수를 갚으면 시원한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원수를 맺는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많아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는 꼭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나만 손해 보는 일이야. 하나님께는 욕이 되고 약한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니 나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하는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저 악한 원수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의 유일한 것, 나의 생명을 무서운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지금 나는 고생스럽고 거듭거듭 억울함을 당하여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찬하만만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도를 간증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기뻐서

찬양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수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윗 장군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킨 다음에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원수가 많았지만 사자의 이빨에 빠가 부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날 더 많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선한 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원수가 억울하게 괴롭혀도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이 오기 전에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참아야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끝까지 참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되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먼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네가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한 다윗을 하나님은 30세 되는 해에 임금의 보좌에 앉혀 주셨습니다.

시험이 어려워도 합격하면 영광이 큼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 안오기를 원하지만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안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다윗 장군이 영광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들에게 존경받는 일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 리 모임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찬송은 대학생들이 자주 드리는 찬송이다. 자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한 각 캠퍼스, 학원, 직장은 여전히 주의 다스림에서 떠나 있다. 이곳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은 영적 무력함이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오히려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싶다.

지난 6월 대학부 GBS시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으로 나눔을 하였다. 세기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며 아버지의 주권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셨다. 그 회복하심을 힘입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그 열기가 무엇이길래 우리도 그것을 좀 알았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런데도 쉽게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 주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하는 역사,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역사, 그러나 지금은 확신한다.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기 속에서 충현대학부를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 있고 그동안 대학부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떠나있던 친구들이 돌아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 또 작은 기도모임이 생기고 세계선교와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열정에 불이 붙었을 때 이미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있었다.

'96 리바이벌 대회를 참석하면서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기념할 만한 사건을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

'96 리바이벌대회를 마치며

“반드시 부흥은 일어납니다”

최지연

(대학부 조장, 2-2교구)

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이후에 하나님의 위엄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열두 돌을 취하라 하셨고

25일 금요일 저녁 선교단체 각 캠퍼스에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였다. 이런 젊은이들을 위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다스림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주시려는 부흥의 기념같이 느껴졌다.

해 기도하시는 우리교회 어른들과 함께 었기 때문에 더 감사했다. 26일 리바이벌 대회 당일에도 고려대 노천극장을 메운 젊은이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

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경배와 찬양의 시간에는 모두 무대로 뛰어나와 자유롭게 찬양하였다. 주님!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송으로 우리들의 기쁨과 헌신을 고백하였다. 지금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존재가 모두 '주님 때문에'라는 고백을 드렸다. 모두 빠져나간 그곳에서 충현대학부 지체들이 남아서 기도드린다. 주님, 우리를 주의 군사답게 훈련시키소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온다. 그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고침을 받았고 뛰면서 주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한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사도들은 잠히고 만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기사와 표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히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더 담대히 주를 전하고 복음을 고백한다. 결국엔 모두 복종하고 풀려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에게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 그러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변혁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한다. 이 힘은 성령으로 비롯된다. 그 충만한 임재가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이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그 불꽃같은 열기로...

•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대학부와 이 땅의 젊은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일일부흥회와 꿈과 사랑의 잔치를 열면서

이준경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결 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 주님께 맺어드린 열매는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만나기 위해 낙도로, 그리고 대학 캠퍼스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만났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적이 더 많았지만 그들을 만난 그 자체가 영혼을 사랑하는 열매가 된다고 믿기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직접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일년이었습니다. 반면 이와같이 직접 영혼을 만나기 위해 나가지는 않았지만 대학부 회원들의 개인적인 초청에 의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초청으로, 또한 자기 스스로 대학부를 찾았던 형제자매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최근에 한 자매가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곤 하는데 그 자매는 대학부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매의 언니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자매였는데 새가족국에 들어와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대학부 수요기도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가족 전체가 믿음 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함께 기도회에 참여했던 형제 자매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학년으로 6학년이던 한 자매는 집회 때에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주님을 믿게 되면서 믿지 않는 남자 친구와 갈등을 빚게 되었지만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말했는데 저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부 집회에서 처음 인사를 하고 새가족국에서 성경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어느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그런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어미의 심정으로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바로 감당치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마저 갖게 됩니다.

대학부에서 오는 11월 8일에 일일부흥회와 11월 10일에 꿈과 사랑의 잔치를 열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 한번의 부흥을 위한 잔치를 열니다.

또한 만일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할 때 더 더욱 주님이 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 내게 정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번 가을입니다.

대학부에서 오는 11월 8일에 일일부흥회와 11월 10일에 꿈과 사랑의 잔치를 열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 한번의 부흥을 위한 잔치를 열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를 떠나 갔던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2000년대를 함께 섬기며 짊어지고 나가자는 꿈을 나누고 자 꿈과 사랑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부흥회와 잃은 양 초청잔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기에 두 행사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는 결코 일회용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심령의 부흥과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교회 안에 있는 대학부에 비록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꿈과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도 함께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십시오.

토막소식

▶ 대학부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제 29차 면려회 총회를 열고 김낙교 형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 청년2부는 지난 10월 27일 면려회 총회를 열고 회장에 김충식 집사를, 부회장에 이봉기 형제와 이수명 자매를 각각 선출했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는 11월 10일 예배 후 교육관 408호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실시한다. 지난 9월과 10월 동안 청년2부에 등록한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주일에는 헌혈을 실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임마누엘찬양대에서는 오는 11월 15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임마누엘 찬양의 밤을 본당에서 갖는다.

▶ 아멘찬양대에서는 오늘 찬양 연습 후 4시부터 45분 동안 대원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기도회를 실시한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실행위원 및 선교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도회를 갖는다.

일자: 96. 11. 6(수)

오후 8시 교회에서 출발

장소: 충현 기도원

인도: 장봉생 목사(선교위 지도)

▶ 교정전도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새가족부 등록실에서 월례회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복음화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제2회 외국인근로자 초청전도집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로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예배 및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 식사 및 선물 증정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으시면 전도 차원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행사에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손질한 주로 겨울 옷가지나 기타 생활

에 요긴한 생활 필수품(비누, 치약 등 세면도구 일체, 각종 세제류 및 휴지, 각종 식용 통조림 등)들을 이들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들은 11월 10일(주일)까지 영어예배부(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1996년 11월 17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문의: 이승림 목사(552-8200)

금주 주부교양강좌

11월 3일(목) 오전 10 ~ 12시, 충현복지관

‘노래 부르기’ — 유혜정 강사

주부강좌 마지막 날. 종강식과 함께 흥겨운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다. 유혜정 노래부르기 교실, 직장 노래 부르기, 어린이 동요교실의 전문 강사인 유혜정 강사가 이 시간을 진행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



차가 빠졌던 곳에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호에서 이어짐〉

한인선교대회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약 800명의 한인선교사와 2000여명의 한인이 모인 제3회 대회였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다 시금 선교에 대한 사명을 확인하였으며, 많은 선교사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충현교회에서 파송받아 일하시는 서만수 선교사님, 이준교 선교사님, 김주경 선교사님과 충현교회 출신 선교사인 안명수 선교사님, 김성식 선교사님, 송균호 선교사님, 전미령 선교사님, 그리고 약혼주례를 해주셨던 백성룡 목사님 내외분과 장녀 백선희 사모, 중고등부 선택로 목사님이 되신 김승현 목사님가족, 임현덕 장로님, 임명기 집사님과 최영신 선생님,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애쓰시는 김중석 목사님 등 너무나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성경학교

8월 7일 입국하여 11일 주일부터 매 주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며, 또 장년 예배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시간이 오

후 1시이므로 어른들이 낮잠을 자기에 주로 청년들을 만나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8월 29일부터는 매주 목요일에도 아침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 찬송과 책략하기, 운동 등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여름성경학교를 모였습니다. 출석은 보통 때보다 많은 30-40명이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방학이어서 도시에서 이곳 인디언 마을에 왔다가 참석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 두 명은 저희가 교회를 하고 있는 헤어스플레이트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헤어스플레이트에서는 성경학교를 17-20일까지 4일 동안 모였었는데 출석은 39-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모 교단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여 우리교회 학생들 10여명이 5-6km를 걸어가 그곳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은 누구나가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체류허가

4월 22일 신청한 체류허가가 허가 만기인 8월 20일을 지나서 9월 9일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동허가 없이 신청

하였는데도 2년간(98년 8월 2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1년짜리를 받았는데 저희는 2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서를 써 놓아야?

마따의 성경학교를 마친 다음 주일인 9월 15일 낮 11시 30분쯤 마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따에 거의 다 가고 약 3km쯤 남겨 놓고 있을 때에 물고가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치 무슨 힘에 밀려가듯 약 100m를 지그재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채로 운전대만 잡고 가다가 차가 흰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을 지나면서 감속과 함께 운전대가 틀리면서 오른쪽 길바닥 약 1.5m 아래로 처박히며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이번에는 차 뒤쪽의 머플러 부분에서 가열된 머플러와 내뿜은 다젤로 인해 잡풀에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발로 불을 밟아 끄면 다시 불고하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던 중 때마침 마을로부터 픽업(4륜구동) 차가 나오기에 그 차로 우리 차를 길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주일학교를 인도하도록 보내 놓고 다시 돌아와 차가 빠졌던 곳에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약속대로 보호해주셨고, 시간에 맞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었고, 차도 불이 붙지 않고, 마침 준비해 주신 차로 차를 길위로 끌어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면서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면서 며칠 전에 읽었던 총회 선교정책 책자의 유어장 양식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우리도 유언장을 써 놓아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리남 소식

5월 23일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 수리남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대통령을 뽑지 못하자(2/3가 되지 못함) 20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도록 하였는데 야당의 베이던 보쉬가 9월 5일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달러를 많이 풀어 암달러가 없어졌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나 더운데다가, 방학기간이라 이곳 교회들은 주일학교도 방학을 하였으며, 교회출석도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방학 후까지도 계속되면서 교인의 감소를 가져오곤 합니다. 더구나 새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아주 이상한 것을 믿기에 영적인 전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리남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 더욱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소식

미국에서 공부하는 소영이와 위영이는 각각 11학년, 10학년이 되었으며, 형님댁에서 잘 돌봐 주셔서 영육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요한은 8월 26일에 5학년이 시작되어 공부를 하는데 조금은 따라가기 힘들어 하면서도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이면 한인교회가 끝난 후 혼자 집에 돌아와 저희가 마따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내에서는 ...

요한이 다니는 학교의 미국내 사서함을 통해 편지종류는 미국내에서 국내 요금으로 보내시면 2주 내에 저희가 학교를 통해 받게 됩니다.

Rev. & Mrs. Seok R AHN P.O.Box 02-5567 Miami FL 33102-5567 U.S.A.

(미국, 캐나다, 남미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